

“소나무 재선충 병 막아라”... 전남지역 확산 비상

작년까지 여수·광양·순천지역서 1만7000여그루 죽어가 정부 단일한 방제 대책에 3년내 국내 소나무 전멸 경고도 송이버섯 연 100억 이상 고부가 창출 보호대책 마련 시급

소나무 재선충 병이 확산 추세다. 여수·광양·순천지역에서 2011~2014년까지 3년간 1만70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220여만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죽거나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단일한 방제 대책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 확산을 불러 3년 안으로 국내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여수·광양·순천 등 전국 72개 시·군으로 확

산하고 있는 상태로 이 속도로 확산할 경우 이르면 3년 안에 소나무가 국내 산림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최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역은 지난 2011년 46개, 2012년 50개, 작년 64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추세다. 피해 나무 수도 2010년 13만 그루에 그치던 것이 2012년 52만 그루, 2013년에는 218만 그루까지 늘어났다.

녹색연합 측은 진해, 거제, 통영 등 경남지역에 집중됐던 재선충이 적절한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지역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 피해는 여수와 광양, 순천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1~2013년 이들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총 1만7163그루로 집계됐으며 확산 추세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 ▲2011년 1511그루 ▲2012년 1320그루 ▲2013년 5509그루 등 3년간 총 8340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다. 순천시도 ▲2011년 648그루 ▲2012년 553그루 ▲2013년 2642그루 등 3년간 총 3843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광양시도 지난 2011년 1620그루에서 발생한 것이 3년간 4980그루까지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0.6mm~1mm 크기의 머리카락 모양인 재선충은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지난 2013년 9월 경남지역 등 남부지방을 중

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한 재선충은 정부의 방제작업에도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도 물론 백두대간까지 번지고 있다는 게 녹색연합 측의 설명이다.

녹색연합 측은 “산림청을 주축으로 한 정부의 단일한 방제대책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재선충은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아내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사한 소나무며 크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속도로 재선충병이 확산하면 3년 안에 소나무가 국내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소나무는 국내 산림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나무에서만 수확되는 송이버섯이 기초단체별 1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백나무 숲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중형차 3대 배출량과 비슷

동백나무숲 1ha당 연간 이산화탄소(CO₂) 흡수량은 7.32t(50년생 기준)으로 중형자동차 3대가 일 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난대·온대지역의 대표적 상록활엽수인 동백나무의 탄소저장량을 산정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난대수종의 분포 지역이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어 난대수종 중 많은 분포를 가진 동백나무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기본밀도, 바이오메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등 필수 탄소흡수계수를 직접 개발, 적용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동백나무숲(국제 규격 축구장 982개의 크기·665ha)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 흡수량은 4868t으로 조사됐다.

동백나무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꽃이 피며 꽃과 잎이 아름다워 관광수로 인기있는 수종이다. 열매에서 기름을 얻을 수 있어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진, 서천, 고흥 등 남쪽지방에서는 일부 동백나무숲이 역사 깊은 사찰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특히 여수 오동도가 유명하다.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강진택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산림식생대의 이동과 난대수종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수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헬기 이용 재선충병 피해목 조사

산림청·자치단체 합동

산림청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전국 12개 시·도, 1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헬기를 이용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선충병 방제 완료 지역과 미발생 지역에서 1월 이후 새롭게 발생한 피해 고사목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헬기 89대와 공무원 등 311명이 참여한다.

특히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유림, 사유림, 문화재 및 군사보호구역 등 모든 산림에 대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조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조사와 국·사유림 구분없는 부처 간 방제 협조를 통해 피해목 전량 제거와 함께 방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오는 4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담당관 80명을 배치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구 허파’ 순천만 습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지구의 허파 습지는 개발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생명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람사르 협약이 정한 ‘2015년 습지의 날 슬로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습지(Wetlands for our future)’다. 사진은 지난 2006년 1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순천만. <광주일보 자료사진>

“온난화 막는 최선의 방법은 나무심기”

英 옥스포드대 과학자들 제기...대기중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도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영국 옥스포드대 과학자들이 결론내렸다.

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옥스포드대 과학자들은 지난 1년 간 공장과 발전소 배기가스를 흡입하거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추출하는 법, 그리고 바다에 석회를 첨

가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거나 폐목으로 숲을 만들어 토양에 뿌리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조림과 바이오숯은 다른 ‘배기가스 추출기법’(NET)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불확실성

이 적으며, 친환경 이점이 많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옥스포드대 과학자들은 조림과 토양탄소 개선 작업만으로 2050년까지 2년 6개월 배출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추출할 수 있다면서 다른 기술은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불확실성과 위험요소도 많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 바다 소금이나 황산염 염화물을 공기 중에 뿌려 햇빛을 반사시키는 것과 같은 지구공학 활용법이 지구온난화 대처에 특효약이 아니라는 내용의 옥스포드 보고서가 나온 데 이은 것이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박태규씨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박태규(50·사진)씨를 신임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가 만료된 임낙평 공동의장 후임으로 선출된 박태규 공동의장은 이정에 전남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 2년간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감사로는 오원만 전남대 치과대학 교수와 김정민 회계사가 선출됐다. 박태규 공동의장은 환경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해온 미술 환경운동가로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모임’ 등을 이끌었으며 지난 2008년부터 환경연합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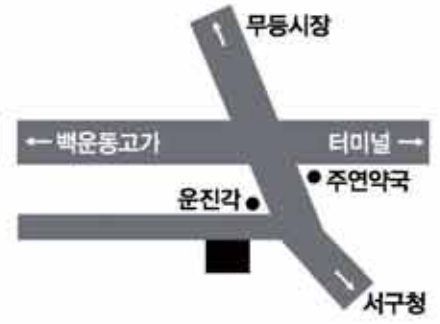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급매” 합니다

투자 가치 좋습니다

직매. 010-3605-5000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1층 - 41평, 상가
2층 - 46평,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웅 3억8천만원 포함, 보 1억에 월 350만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뒷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2월 6일까지

5억8천 만원